

신임 농어촌공사장에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 임명

2025년 05월 14일(수) 15:19



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

1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제58대 차관을 역임했다. 약 30년 간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농정전문가로 손꼽힌다.

특히 농어촌공사와 밀접한 식량정책과 농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쌀값을 안정시켰으며 현재 농업 직불제의 근간이 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차관보·차관 시절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다.

신임 김 사장 취임식은 15일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서 개최된다. 홍승현 기자

이 기사는 전남매일 홈페이지(www.jndn.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47203553409502099>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2일 15:07:04